

레모네이드 팔던 소년에게 기부금 몰린 사연

레모네이드를 팔던 11세 미국 소년이 위조지폐 사기를 당한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주 에버렛에 사는 제러미(11)는 최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하다가 위조지폐 사기를 당했다.

당시 제러미는 한 잔돈이 없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고, 거스름돈으로 85달러를 주고 남은 거스름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후 제러미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근처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100달러짜리 지폐가 위조지폐였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당시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을 공개하고 사진 속 남성을 아는



▲ 제러미(왼쪽 사진)와 제러미에게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남성의 모습. 사진=고펀드미/에버렛 경찰 페이스북



사람들은 제보해달라고 했다.

또 이웃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던 에이미는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제러미의 사연을 공개하고 그가 손실금을 메우고 레모네이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원을 호소했다. 제러미의 사연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소개됐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8일 현재 1만 2,000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범인이 꼭 잡히길 바란다.", "아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손실금 1,000배가 넘는 돈을 후원하는 게 옳은 일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악 가뭄에 2차대전 불발탄 발견



▲ 이탈리아 폭발물처리반이 포강에서 불발탄을 건져올리고 있다. 사진=wionews.com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강둑에서 세계 2차대전 중 사용된 불발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인근 포강에서 주민들이 발견한 이 불발탄은 무게가 무려 450kg에 달한다. 이 폭탄은 70여 년 전인 세계 2차대전 중 사용된 것으로, 지금까지 강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령을 휩쓸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이탈리아에서 강이 바닥을 보이면서 드러났다. 이탈리아 당국은 고심 끝에 지난 7일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거대한 불발탄을 해체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먼저 이탈리아 군당국과 보르고 비르질리오시는 주민 3,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이 지역의 영공, 수도, 철도와 국도 교통도 일시 중단시켰다. 이후 군 폭발물처리반이 해체작업에 들어가 폭탄의 퓨즈를 제거한 후 인근 채석장으로 옮겨 폭발시켰다.

프란체스코 아포르티 시장은 "주민들 중 일부가 대피하지 않겠다고 버텨 지난 며칠 간 이들을 설득해야 했다."면서 "폭탄 안에는 약 240kg에 달하는 폭약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악의 가뭄으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북미 최대 인공 호수 미드호에서는 지난 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네 번째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미드호는 농업 관개용은 물론 미 서부 전역 약 2,5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한다.

친언니로 위장해 혼인신고 했다가 들통난 여성

최근 중국에서 이미 결혼한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 혼인 신고를 한 철없는 여동생 탓에 무려 30년간 서류상 중혼 상태였던 여성에게 죄목을 물어야 하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 중국 혼인 증명서. 사진=웨이보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중국 쓰촨성에 거주하는 사오신 씨가 미성년 신분임에도 남성 A씨를 만나 결혼을 계획하면

서 시작했다. 당시 사오신 씨는 동거인 A씨와 결혼을 위해 관공서를 찾아갔으나,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할 수 없다는 혼인법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돈벌이를 위해 대도시로 이주를 준비 중이었고, 그 전에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하길 원했다

사오신 씨는 유부녀인 친언니의 신분증을 훔쳐 그의 신분인 척 가장해 정식 부부가 됐다. 그런데, 그 후 무려 30년 만에 따져주 대죽현의 경찰서에서 혼인 서류를 정리,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던 중 사오신 씨의 언니가 무려 30년째 중혼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친언니

신 씨는 여동생의 남편과 중혼 상태를 무효화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관할 법원은 원고 신 씨의 신청에 따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오신 씨가 자신의 죄를 누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